기본 AI 활용 역량 진단 문항과 구조

진단 목적 · 5개 실천 영역 · 31문항 · 점수와 유형 판정 · 결과의 구성과 활용

2026. 10. 27.

I. 진단 개요

□ 진단 목적

○ 회사 업무에서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협업하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제 행동**으로 구성원의 AI 활용 역량을 진단함

○ 구성원 개인의 **강점·보완점**과 **AI 활용 유형**을 확인하고, 다음 4주의 업무 행동 과제를 정함

○ 그룹 링크(?group=그룹코드)로 부서·직무군·프로젝트 팀의 역량 프로파일과 직무군별 차이를 분석함

□ 진단 대상: 기업 구성원(직장인). 응답 시 회사 내 직무군을 선택하고, 그룹 링크(?group=그룹코드)로 부서·프로젝트 팀 응답을 묶음

□ 진단 구성

○ 실천 5개 영역 25문항(영역별 5문항)과 태도 6문항, 총 **31문항**, 5점 동의 척도

○ 배경 문항: 회사 내 직무군(경영·관리, 기획·사무·재무, 인사·교육(HRD), 영업·마케팅, 연구·개발, IT·데이터, 생산·기술·품질, 서비스·운영, 기타 직무)

○ 소요 시간 약 6분, 익명 웹 응답, 응답 직후 결과 확인(결과 코드 발급)

□ 작성 방식: 진단의 관점 → 구조 → 문항 → 점수와 유형 판정 → 결과의 구성과 활용 → 결과 예시 순으로 정리하고, 각 장의 기준이 실제 진단 화면의 계산 방식과 일치하도록 작성함

II. 진단의 관점과 구조

1. 진단의 관점

□ AI 활용 역량은 AI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가 아니라, AI와 일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지휘하고, 확인하고, 책임지는**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가로 봄

○ 지식이나 자신감이 아닌 **실제 행동**의 빈도와 습관을 물음

○ AI 사용의 흐름(맡기기 전 → 맡길 때 → 결과를 받으면 → 내기 전 → 쓰는 내내)에 따라 다섯 영역을 둠

○ 행동과 별도로, 바람직한 AI 사용에 대한 **태도**를 6문항으로 함께 봄

2. 5개 실천 영역

맡기기 전	→	맡길 때	→	결과를 받으면	→	내보내기 전	→	쓰는 내내
위임 판단		AI 협업 지휘		검증		책임 있는 사용		인간 역량 지키기

<표 1> 영역별 핵심 질문, 정의, 놓쳤을 때의 위험

영역	사용 시점	핵심 질문	정의	놓쳤을 때의 위험
위임 판단	맡기기 전	이 일을 AI에게 맡길까?	일의 위험, 확인 가능성, 효율을 따져 AI를 쓸지, 얼마나 쓸지 정함	과의존·과소의존
AI 협업 지휘	맡길 때	어떻게 맡길까?	목적과 조건을 전달하고, 단계를 나눠 진행하며, AI가 행동할 범위를 정함	엉뚱한 결과, 과도한 권한 위임
검증	결과를 받으면	결과를 믿어도 될까?	사실, 근거, 출처, 완료 여부를 원자료로 확인함	허위 정보 수용, 확증 편향
책임 있는 사용	내보내기 전	이대로 내보내도 될까?	개인정보, 저작권, 공정성, 사용 공개를 지키고 결과를 내 책임으로 다룸	정보 유출, 표절, 차별
인간 역량 지키기	쓰는 내내	내 힘은 그대로인가?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기본기를 유지하며,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배움	사고력 약화, 기술 퇴화

3. 설계 원칙

□ 행동 문항: 모든 실천 문항은 “~한다”로 끝나는 구체적 행동으로 물어, 응답자가 자신의 실제 습관을 떠올리게 함

□ 영역 섞어 제시: 한 화면에 영역별 1문항씩 섞어 제시하여(D1·L1·V1·R1·H1 …) 같은 영역 문항에 비슷하게 답하는 경향을 줄임

□ 기업 업무 맥락: 직장인이 회사의 일상 업무를 떠올리며 답하도록 문항과 예시를 구성함. 회사 규정·업무 절차에 따른 공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등 책임 있는 AI 활용 상황을 포함함

III. 진단 문항

□ 응답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표 2> 영역별 진단 문항과 측정 내용

코드	문항	측정 내용
위임 판단		
D1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AI가 틀렸을 때 생길 피해가 얼마나 클지 따져 본다.	틀렸을 때의 피해
D2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그 결과가 맞는지 내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따져 본다.	확인 가능성
D3	AI의 답을 받을 때, 비슷한 일에서 AI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떠올려 본다.	AI 정확도 경험
D4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직접 하는 편이 더 빠를지 따져 본다.	직접 하는 효율
D5	채용·평가처럼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AI가 제안하지 않은 선택지도 따져 본다.	다른 선택지 검토

코드	문항	측정 내용
AI 협업 지휘		
L1	AI에게 요청할 때, 결과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알려 준다.	용도 전달
L2	AI에게 요청할 때, 지켜야 할 조건(예: 분량, 형식, 피해야 할 내용)을 함께 적는다.	조건 제시
L3	AI의 답이 내 의도와 다르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짚어서 다시 요청한다.	구체적 재요청
L4	여러 단계로 된 일을 맡길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결과를 확인한다.	단계별 확인
L5	AI가 나 대신 행동하게 하기 전에(예: 메일 보내기, 파일 수정, 예약), AI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인한다.	권한 범위 확인
검증		
V1	AI가 제시한 수치를 사용하기 전에, 원래 출처에서 확인한다.	수치 원출처 확인
V2	AI가 제시한 출처(논문, 기사, 웹페이지)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출처 실재 확인
V3	AI의 답을 읽을 때, 근거가 제시된 내용과 근거 없이 주장된 내용을 구분한다.	근거·주장 구분
V4	AI의 답이 내 예상과 같을 때에도, 그 답의 근거를 확인한다.	확증 편향 경계
V5	AI가 작업을 마쳤다고 알릴 때, 결과물을 직접 열어 확인한다.	완료 결과 확인
책임 있는 사용		
R1	AI에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개인정보 보호
R2	AI가 만든 내용을 내 이름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설명 책임
R3	회사 규정이나 업무 절차에 AI 사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 AI를 어떻게 썼는지 밝힌다.	AI 사용 공개
R4	AI가 만든 결과물에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이 있는지 살펴본다.	차별 표현 점검
R5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그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저작권 확인
인간 역량 지키기		
H1	AI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한다.	먼저 생각하기
H2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라도, 내 일의 기본이 되는 작업은 직접 한다.	기본기 유지
H3	AI의 도움으로 마친 일에서 내가 새로 배운 점을 돌아본다.	배움 성찰
H4	AI를 써서 마친 일을 AI 없이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AI 없이 수행 가능성
H5	AI가 쓴 글을 사용할 때, 내 표현으로 다시 쓴다.	내 표현으로 다시 쓰기

코드	문항	측정 내용
태도		
T1	AI에게 맡기면 편한 일이라도, 맡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임 판단 태도
T2	중요한 결정일수록 AI의 제안보다 사람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사람 판단 우선
T3	AI의 답이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을 들여 확인할 가치가 있다.	확인의 가치
T4	AI가 낸 오류라도, 그 결과를 사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사용자 책임
T5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AI를 활용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공개
T6	AI가 더 빨리 처리하는 일이라도, 사람이 직접 익혀 둘 필요가 있다.	직접 익힘의 가치

※ 태도(T1~T6)는 종합 점수에 넣지 않고 따로 산출하며, 나의 결과에서 태도 점수와 실천(종합) 점수의 차이를 함께 보여 줌

IV. 점수 산출과 유형 판정

<표 3> 점수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비고
영역 점수	(영역 5문항 평균 − 1) × 25 → **0~100점**	5개 실천 영역 각각 산출
종합 점수	5개 실천 영역 점수의 평균	태도는 제외
태도 점수	(태도 6문항 평균 − 1) × 25	종합과 별도로 표시
수준 이름	80점 이상 주도 · 60~79 정착 · 40~59 형성 · 40 미만 시작	정착 기준점 60점(잠정)
위치	비교 집단 안에서의 상위 백분위(상위 n%)	비교 집단 응답 5명 이상일 때 표시

<표 4> AI 활용 유형 판정 규칙(위에서부터 차례로 적용)

유형	판정 조건	특징
AI 드림팀 캡틴	종합 80점 이상이고 가장 낮은 영역도 70점 이상	다섯 영역이 모두 습관이 된 상태
AI 새내기 탐험가	종합 40점 미만	출발선, 성장 폭이 가장 큰 단계
질주하는 스피드레이서	AI 협업 지휘 65점 이상이고 검증가 AI 협업 지휘보다 20점 이상 낮음	잘 시키지만 확인 없이 달리기 쉬움
손맛 지키는 장인	인간 역량 지키기 65점 이상이고 AI 협업 지휘가 인간 역량 지키기보다 20점 이상 낮음	자기 실력은 지키지만 AI에게 잘 맡기지 않음
오각형 꿈나무	가장 높은 영역과 가장 낮은 영역의 차이 12점 미만	고르게 성장 중, 대표 강점은 아직 없음

유형	판정 조건	특징
영역 대표 유형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영역의 유형: 냉철한 전략가(위임 판단) · AI 조련사(AI 협업 지휘) · AI 팩트체크 탐정(검증) · 디지털 양심 지킴이(책임 있는 사용) · 생각 근육 트레이너(인간 역량 지키기)	가장 두드러진 강점 영역

V. 결과의 구성과 활용

1. 결과 화면의 구성

응답 31문항 + 구분 → **점수** 영역별 0~100점 → **유형** 10가지 유형 → **비교** 나 · 그룹 · 구분 → **행동** 다음 4주 과제

<표 5> 결과 화면별 주요 내용과 활용

결과 화면	주요 내용	활용
나의 분석결과	AI 활용 유형(이름·설명·자주 하는 말), 종합 점수와 수준, 나와 그룹의 영역별 비교(레이더), 기초 통계, 한눈에 보는 나의 강점과 약점, 다음 4주 이것부터 해 보세요	나의 업무상 강점과 보완점을 알고 실천 과제를 정함
우리 그룹 분석결과	영역별 그룹 프로파일, 영역별 수준 분포, 영역별 기초 통계, AI 활용 유형 분포, 그룹이 잘하는 행동과 놓치는 행동(문항), 직무군별 평균	부서·프로젝트 팀의 공통 보완 영역을 찾음
응답자 직무군별 비교	경영·관리, 인사·교육, 영업·마케팅, 연구·개발, IT·데이터, 생산·기술·품질 등 직무군별 영역 프로파일과 요약(응답 수·종합 평균·대표 유형), 영역별 평균 비교와 일원분산분석(F, p)	직무군 간 차이를 확인하고 맞춤 지원을 설계함

□ 행동 제안 산출 방식

○ 기준에 못 미친 영역을 낮은 순으로 최대 3개 골라, 영역마다 행동 팁 3개와 “지금 덜 하고 있는 행동”(3점 이하로 답한 문항 최대 2개)을 다음 4주 과제로 제시함

○ 가장 강한 영역은 “강점 살리기” 카드로 유지할 행동을 제시하고, 태도와 실천의 차이를 함께 풀이함

□ 개인 결과는 본인의 업무 개발에, 그룹 결과는 부서 회의·사내 교육·업무 절차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활용 절차

□ 운영 절차

○ ① 준비: 회사·부서·프로젝트 팀별 그룹 코드를 정해 링크(?group=그룹코드)를 배포함

○ ② 응답: 업무 중 평소 AI 활용 행동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함(그룹 비교는 5명 이상부터 안정)

○ ③ 공유: 그룹 결과에서 공통으로 놓치는 행동을 함께 확인함

○ ④ 실행: 개인별 4주 업무 실천 과제를 정하고, 부서의 업무 절차·교육·지원 방안을 보완 영역에 맞춤

○ ⑤ 재진단: 4주~한 분기 뒤 같은 링크로 다시 진단해 변화를 확인함

<표 6> 활용 주체별 결과 활용

활용 주체	먼저 볼 결과	이어서 할 일
구성원	나의 유형, 업무상 강점과 약점, 다음 4주 과제	업무 행동 하나를 정해 4주 동안 실천하고 다시 진단함
팀장·부서장	그룹 프로파일, 그룹이 놓치는 행동, 직무군별 차이	업무 절차와 팀 실습·공유 활동을 보완 영역에 맞춤
인사·교육·AI 담당자	부서·직무군별 비교와 차이 검정	직무 특성에 맞는 교육·사용 지침·지원 방안을 설계함

3. 해석상 유의 사항

□ 자기 보고 응답이므로 실제 행동보다 높게 응답할 수 있음. 개인 평가나 인사·성적 자료로 쓰지 않음

□ 응답 수가 적은 집단의 평균과 차이는 참고용으로 보고, 차이 검정($p < .05$)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함께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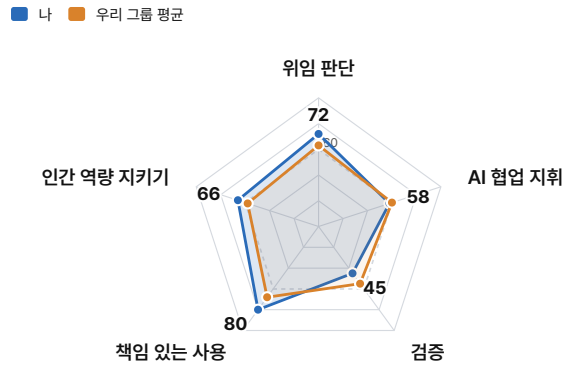
□ 이 진단은 BETA임. 수준 기준점(60점)과 유형 규칙은 타당화 전의 잠정 기준임

VI. 결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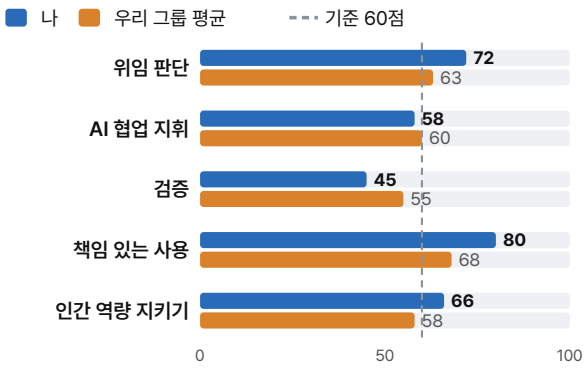
□ 아래는 응답자 한 사람(직장인)이 받는 결과 화면을 **가상 수치**로 재구성한 예시임. 비교 집단 응답 24명을 가정함

※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진단 결과가 아님

1. 영역별 역량 프로파일



[그림 1] 영역별 점수 방사형: 나와 우리 그룹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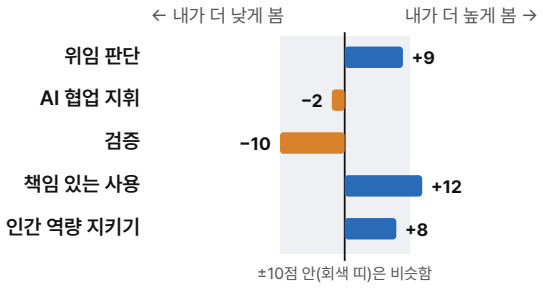
[그림 2] 영역별 점수 비교(0~100점)

□ 판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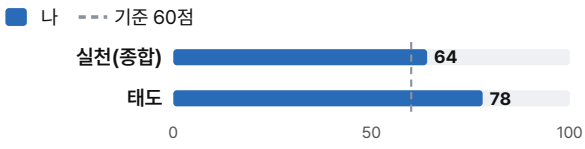
○ 종합 64점(정착), 태도 78점. 가장 높은 영역은 책임 있는 사용(80점), 가장 낮은 영역은 검증(45점)

○ AI 활용 유형: **디지털 양심 지킴이** — 가장 높은 영역이 책임 있는 사용이고, 다른 유형 조건(드림팀·스피드레이서·장인·오각형)에 해당하지 않음

2. 비교 집단과의 차이



[그림 3] 영역별 차이(나 − 우리 그룹 평균)



[그림 4] 실천과 태도

<표 7> 영역별 비교표 예시

영역	나	우리 그룹 평균	차이	나의 수준
위임 판단	72	63	+9	정착
AI 협업 지휘	58	60	−2	형성
검증	45	55	−10	형성

영역	나	우리 그룹 평균	차이	나의 수준
책임 있는 사용	80	68	+12	주도
인간 역량 지키기	66	58	+8	정착

□ 해석 예시

○ 검증이 그룹 평균보다 10점 낮고, 기준(60점)에도 못 미침. 다음 4주 과제의 첫 번째 영역이 됨

○ 태도(78점)가 실천(64점)보다 14점 높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3. 행동 제안 예시

□ 다음 4주, 이것부터(검증 45점 → 60점)

○ AI가 제시한 수치는 쓰기 전에 원래 출처에서 한 번 확인함

○ AI가 알려 준 논문·기사가 실제로 있는지 검색해 봄

□ 강점 살리기(책임 있는 사용)

○ 개인정보·저작권을 살피는 나의 습관을 동료에게 알려 그룹 전체의 수준을 높임